

# 차라리 의사 파업법을 만들자

## 태평로



김민철  
논설위원

이번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집단 행동을 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우선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의대 증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며 파업 등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 놀란다. 다른 나라에서도 의사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일은 있다지만 의사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를 애기다.

그 결과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에 실려 ‘뺨뺨이’를 들고 중환자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일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단체인 대한응급의학회소회가 일찌감치 “(진료 환경)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응급 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번 사태에서 놀라운 장면 중 하나다. 응급실만은 의사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곳 아닌가.

의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동안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정부가 양보했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때 의료계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의대 정원 10% 감축 등 다양한 양

보안을 내놓았다. 이때 정권 감축을 안 했더라면 지금의 의사 부족 걱정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 하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나서자 취소했다. 2020년엔 정부가 10년간 총 4000명의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전공의를 중심으로 전면 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코로나 기간이라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노환규전 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정부는 의사가 길 수 없다” “의료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모골이 송연해지는 표현이다.

**응급실조차 서슴없이 떠나고 업무개시명령도 무시 속수무책 철도 파업도 필수인력 남기는데 필수 의료진은 남게 입법이라도**

우리나라 노조법은 철도·병원·통신·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혈액 등 10가지 사업을 필수 공공 사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인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파업을 해도 공중(公衆)의 생명·보건이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분야는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간호사 등이 주축인 보건노조는 법적인 파업권을 갖고 있지만 파업할 때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인력은 유지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더라도 필수 유지 인

력 9200여 명을 제외한 약 1만300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식이다. 항공사 노조는 파업해도 운항률을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내륙 노선 50% 이상 각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일이 드물다. 이런 조항이 노조의 파업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리나라 노조들은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

의사들이 하는 일은 이런 업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다룬다. 의사 단체들은 노조가 아니어서 파업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의사들이 협회나 의사 단체 결의로 서슴없이 파업에 돌입하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파업을 해도 응급실 등 명백한 필수 유지 업무도 가리지 않고 필수 인력 유지라는 개념도 없다.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서 보듯 집단으로 거부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집단 시위 등 형식이나 법적인 문제는 더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의사 말고는 약사, 화물기사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금 의사들에게 어떻게 환자 결을 떠날 수 있느냐며 직업윤리를 들이대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 지금처럼 파업을 몇 년 주기로 반복하고 응급실 사 등이 주축인 차라리 의사들에게 파업권을 주면서 파업 절차를 지키게 하고 필수 인력이나 유지하게 하는 ‘의사 파업법’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김준의 맛과섬 [179]

### 통영 너물비빔밥



정월대보름이면 할머니는 대문 밖에 짚을 깔고 고사리나물, 무나물, 호박나물, 취나물 등 나물을 놓고 그 위에 흰밥을 내놓으셨다. 산골이라 바다 것은 올릴 수 없었다. 이를 물밥이라 했다. 객사나 횡사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잡귀, 잡신을 달래는 밥이다. 이를 객귀밥, 까치밥, 바가지밥, 거러밥이라 부르기도 한다.

오랜만에 물밥을 만났다. 지난 2월 중순 거제시 죽림마을 별신굿에서다. 그런데 할미당 마루불에게 올린 제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날 통영에서 먹었던 ‘너물(나물)’이 올려져 있었다. 죽림마을 할미당은 곤발네 할매가 기도를 드리던 마루불을 모신 곳이다. 이 할매는 1885년 을유년 대흥년 때 굶

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직접 가꾼 수수와 조로 엿을 만들어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마을 안녕과 풍어를 점치 해 주는 마을 신이다. 할미당굿이 끝나자 제수 아내가 먼저 너물을 쟁겨 물밥을 만들었다. 바다에서 비명횡사한 잡귀, 잡신에게 주려는 것이다.

너물은 탕국이 자작해야 한다. 여러 너물을 한 그릇에 담아 국과 찬을 겸해 밥 한술 툇딱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너물을 섞어서 먹으면 너물밥이 된다. 안동이나 진주 햇제삿밥과 비슷하지만 잔치 음식으로도 먹는다. 너물밥 근원을 따지는 것은 어렵다. 다만 통영에서 너물밥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섬과 바다를 아우르는 따뜻한 남쪽이라는 지역성을 꼽을 수 있다. 섬에서 나오는 미나

리, 도라지, 고사리, 쑥, 배추, 방풍, 무, 부추 등 육지 것과 갯벌에서 나오는 게 조개, 조개, 굴, 미역, 청각, 톳 등 것들이 만나 너물밥이 된다. 계절에 따라 텃밭과 갯벌에서 쉬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곤발네 할매가 그랬듯이 산자의 주린 배를 채우는 음식이요, 망자를 위한 제물이다. 별신굿처럼 의례에서는 마을이나 진주 햇제삿밥과 비슷하지만 잔치 음식으로도 먹는다. 너물밥 근원을 따지는 것은 어렵다. 다만 통영에서 너물밥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섬과 바다를 아우르는 따뜻한 남쪽이라는 지역성을 꼽을 수 있다. 섬에서 나오는 미나

# 社 說

## 매일 분란 민주당 공천, 보는 국민이 피곤할 지경

민주당에서 총선 공천을 둘러싼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가 확정되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불공정하다며 사퇴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박영순 의원은 공천 배제 판정을 받고 탈당을 선언했고, 설훈·이상현 의원은도 탈당을 시사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신당에 합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과 비교하면 분당(分黨) 수준이다.

어느 정당이든 공천 때마다 잡음이 나오고 분란이 생긴다. 그래도 정도가 있다. 지금 민주당은 지지자들마저 공천 과정을 보며 혀를 차고 눈살을 찌푸린다. 이대표는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를 혼자서 결정했다. 미루고 미루다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거기에 ‘총복·고담 세력’을 끌어들이더니, 당 내 공천에서는 ‘밀실 회의’ ‘불공정 여론조사’ 논란을 초래했다.

지도부와 친명계는 거의 예외 없이 단수 공천을 받은 반면, 이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의심을 받은 의원은 대부분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거나 탈락했다. 이 대표 자신은 7개 사건에 10개 혐의를 재판받으면서 황우환·노웅래 등 재판받는 다른 의원의 출마는 봉쇄했다. ‘대장동 변호사’ 도 6명

이 출마해 모두 공천에서 순항 중이다. 차기 당대표 경쟁자로 거론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정담용 솔 자리’ 가짜 뉴스 제보자를 공의 신고자로 인정하려고 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했다. 공천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다.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당대표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이 대표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지만, 그와 친한 사람은 살리고 맞았던 사람은 정확히 도려내는 시스템에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역대 총선에서 공천 잡음이 컸던 당이 승리한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도 이렇게 국민의 시선을 무시하고 공천 전환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이 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과 민주당을 지지할 문지 마지치층이 이번에도 흔들릴 없이 표를 줄 것으로 믿는 모양이다. 국민은 지금 불경기와 감정은 위험 속에 의사 집단 파업까지 더해져 불안하다. 이 와중에 매일 중계되는 다수당의 공천 분란 소식은 짜증과 피로까지 않고 있다. 이라고도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동영상 시청

## 사람 생명을 투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며 병원의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으로 50%가량 줄었다. 전공의의 반자리를 전임의와 교수수로 메우는 중인데, 이들의 피로가 커져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현상 분위기라고 한다. 지난 25일 경남 창원에서는 영아 호흡곤란 등 위급 증세를 보였지만, 대형 병원 5곳이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절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올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일부 복귀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 뚜렷한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정부는 미복귀자에게 면허 정지와 사법 처리 등을 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의사들이 원해온 의료사고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2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의사 직업윤리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라는 의사의 존재 목적을 부인한 것이고,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이런 반윤리적인 결정을 쉽게 하고, 또 다수의 전공의들이 서슴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 많은 국민들이 놀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한 집단이 단체 행동으로 집단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도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나.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집단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면 설사 이번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다 하더라도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 의료 활동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특별한 존중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의사들은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의사들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요구와 주장을 하기 바란다.

## 러시아가 북에 보낸 9000개 컨테이너에 무엇이 들었나

북한이 지난 6개월간 러시아에 컨테이너 6700개 분량의 포탄을 지원했다고 신원식 국방 장관이 밝혔다. 신 장관은 152mm 포탄이면 300만발 이상, 방사포탄이면 50만발 이상이 러시아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에서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포탄 공장은 풀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 중인 러시아의 하청을 받아 포탄 생산 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은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약 9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물품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 있었는지는 모른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털어 주는 데 주안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그것뿐이었겠느냐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

우리 군 당국은 그 컨테이너에 무기 제조용 소재·부품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이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러시아에 돌려보내고 자신들도 확보하는 방식의 군사 협력 모델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 푸틴은 작년 9월 러시아를 방

문한 김정일을 극진하게 맞아 우주 기지 및 전투기 생산 공장 등 민감한 첨단 무기 시설들을 두루 둘러보게 한 뒤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 같은 러·북 군사 협력은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가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를 적대시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판 발언에 대해 “혐오 스톱”이라고 하기도 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우호국’, 북한은 ‘우호국’으로 불렀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유엔 제재를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자신이 찬성해 채택된 대북 제재다. 이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러시아가 북한 포탄에 대한 대가로 우리를 위협할 무기와 기술을 북에 제공한다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과 거래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는 누구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 이재명은 극좌 숙주인가

# 경기동부연합, 국회 입성하면 민주당 배 가르고 나올 것

성남시장 때부터 숙주 노릇 자임 | 경기지사·대선후보 거치며 점점 배 불러와 | 싸꾸기 전술로 민주당 차치하는 중

**이석기는 살아 있다**

조선일보(2024/02/26) 기사에 '산 옮기기'라는 말이 나온다. <경기동부연합>의 [저인망식 세력 확장] 전술을 일컫는 말이다.

<경기동부연합>은 이석기가 거느린 <통합진보당(통진당)> 잔당이다. <통진당>은 박근혜 대통령 때 해산당했다. 기사는 계속된다.

"<경기동부연합> 출신 양경수는 민주노동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선출되었다. <통진당> 후신 <진보당>은 전북 전주 울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인해전술을 보여줬다."

**싸꾸기 전술과 이재명의 민주당 잡아먹기**

이보다 훨씬 오래전, 그들 주사파는 삼삼정·노회찬 주대환 등, 비(非) 주사파가 만든 <민주노동당>을 [싸꾸기 전술]로 빼앗아 먹었다.

2024년 2월 13일엔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추진

**연석회의**라는 게 열렸다. <민주당> 박홍근 추진단장, <연합정치시민회의> 박석운·조성우 공동위원장, <진보당 율회숙 대표, <진보연합> 용해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단체인 좌파 성향 234명이 참여했다. **이재명의 [싸꾸기 전술]**이었다.

이재명은 자신의 방탄(防禦)을 위해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私黨)]으로 만들려 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전대협] 민주당을 지우고 [한총련 + 극렬 아스팔트꾼 + 경기동부연합] 민주당을 만들려 한다.

**싸꾸기 전술'은 공신당의 오랜 전통**

반면에 극렬 파들은 기존 민주당을 [싸꾸기 전술]로 빼앗아 먹으려 한다. 우리 정치사에서 [싸꾸기 전술]의 내력은 길다.

8.15 해방공간에서 <공산당>은 여운형의 <인민당>을 그런 식으로 파괴하여 잡아먹었다.

민주화 운동 초기·중기인 1960~70년대엔 극좌파의 지하당(黨)들이 있었다. 그들은 민주화 운동

에 침투하려 했지만, 주변부에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후기에 와서야 주사파는 [대통령 직선제]와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내걸어 재미를 왕창 보았다. 김대중은 이들을 [새 피수혈]이라며, [말락] 했다.

현실 정치에 들어온 그들은 [노무현·문재인 세상의 주류·실세]로 컸다. 제도권 야당에 들어와 그것을 집어 삼킨 셈이다.

**숙주 이재명의 출산 압박, 보고만 있을 건가**

1992년엔 <민족민주혁명당>이란 총복 지하당이 생겼다. 일부는 전향했다. 그러나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은 전향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재명 삼남]을 거점으로, 지역 [생태계 + 먹이사슬]을 거머쥐었다.

이들은 이재명 대거 22대 국회로 들어오려 한다. 이재명 당은 그들에게 공천문을 활짝 열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개혁진당 이원욱 의원은 "경기동부 세력이 이재명을 숙주로 성남시·경기도를 지나 국회 진출까지

**시도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저들의 먹이감이 될 판이다.

자유인들은 답하라. 당신들은 저들 [맹독성 코브라 들]의 국회 입성과 국정 농단을 허용할 참가자, 분쇄할 것인가?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27일 본 칼럼 내용이 '허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여, 뉴데일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본지는 언론중재위 절차에 따라 정정보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교수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류근일 칼럼: 한국은 선택해라**

전향 운동권 함윤경, 주사파-테러리스트 출신 정철대 잠을 수 있으나-이석기

**류근일 칼럼: 공천핵심**

김대중-노무현 문재인 계, 씨 마른다-이재명 먹기과 숙망 맛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2월 27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76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